

일 주 문



구정맞이 불우이웃 돕기 청소년교화연합회 총재 현성 스님은 1월 23일 흥은동 거주 소년소녀가족과 다문화가족, 독거노인에게 구정맞이 쌀 20kg 60포대를 전달했다.



법문집 <무불취> 출판기념법회 건불선원 선원장 수완나 스님은 1월 31일 건불선원 대법당에서 법문집 <무불취> 출판기념 고불법회를 개최했다. (070)7717-2276

금강대 5대 총장에 한광수 이사장 선임



금강대 제5대 총장에 한광수(69) 미래 동아시아연구소 이사장이 선임됐다. 금강대는 1월 22일 총복 단양 구인사 삼보당에서 이사회를 열고 제5대 총장에 한광수 이사장을 선임했다. 임기는 2월 8일부터 4년간이다. 한 총장은 산업연구원·외무부·중국어학회와 경제연구소 등에서 중국경제 및 한중경제 연구위원을 역임했으며,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대 교수 부임 후 2004~2012년 동 대학 학장을 지냈다. 저서로는 <중국의 경제특구 개발과 우리의 대응>(산업연구원, 1981), <중화경제권 부상과 우리 기업의 대응>(대한상의, 1997) 등이 있다. 노덕현 기자

법륜종 초대종정 금암대종사 원적

한국불교 법륜종 초대 종정 금암 스님이 1월 23일 입적했다. 세수 102세, 법랍 85세. 금암 스님은 1914년 12월 충남 금산군 진산면에서 출생했다. 15세에 동학사에서 한문을 익혔고, 16세인 1930년 계룡산 동학사에서 도광 원의(道光元益) 선사를 스승으로, 석우(石牛) 스님을 계사로 출가 득도했다. 1936년 동학사 불교전문강원에서 백초월(白初月)·윤운문(尹雲門) 스님을 스승으로 사교과 수료, 전주 위봉사·금산 보석사 연합 불교전문강원에서 대교과를 졸업했다. 1946년 공주 동학사 주지로 피선(被選) 재직하였으며, 1970년 대전 도솔산 보광사(普光寺)를 창건했다.

송찬우 중앙승가대 교수 별세



경전 번역과 선어록 강의의 대가인 동현 송찬우 前중앙승가대 교수가 1월 26일 새벽 자택에서 앓은 채로(坐脫) 영별하며 입적했다. 향년 64세. 송 교수는 1951년 전남 고흥에서 태어나 동국대 불교대학을 졸업하고, 민족문화추진위원회 국역연구원을 수료했다. 고려대 한문학과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했으며, 동국대 경원역경위원과 중앙승가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주요 저·역서로는 <조론(肇論)>, <금강경과공론(金剛經破空論)>, <장자선해(莊子禪解)>, <노자(老子) 그 불교적 이해>,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 등이 있다. 신성민 기자

“교수들 불자 밝히는 문화 형성 할 터”

심익섭 교수불자연합회 신입회장

“교수불자연합회 회장직은 봉사의 자리입니다. 교수불자연합회가 불자교수들의 연합체로 활발한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심익섭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63세, 법명 룬성)가 교수불자연합회 신입회장으로 추대됐다. 전국 불자 교수들의 모임인 교수불자연합회는 1월 26일 서울 인사동 대연에서 불교계 기자들과 신년교례회를 갖고 신입 회장단 구성 등 새해 주요 일정을 설명했다.

교불련은 2월 27일 창립 27주년 기념법회를 갖고 신입 임원진을 구성할 계획이며 신입 심익섭 회장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시작한다.

심익섭 회장은 지방자치행정 전문가로 한국의 풀뿌리민주주의와 지방행정 체제 개편과정에서 기여한 공로가 높다. 불교계에서도 심 회장은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을 맡는 등 조계종 수도권 불교 활성화 및 교구 분권화와 사찰관리체계를 비롯해 행정제도에 이론적 뒷받침을 해왔다.

심익섭 회장은 “최근에는 종단사에 크게 기여한 바가 없어 이런 직책을 맡기가 송구스럽다”며 “교수불자회 회장직은 신행을 이끌며 보시하는 자리이기에 회원 교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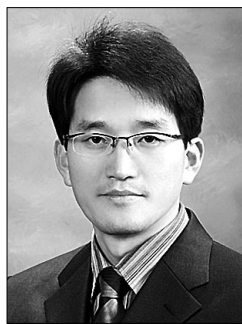


행정 전문가로 지방자치 전공 종단 행정 체계 구축에 공헌 2월 24일 학술대회 개최 예정

의 활발한 활동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심 회장은 불자집안에서 태어나 인천 서구 용문사를 원찰로 활발한 신행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심 회장은 이런 원력을 바탕으로 특히 공직에 나서는 교수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을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무기력 타파하는 새 불청운동”

제32대 부산 대불청 정승안 신임회장



대한불교청년회부산지구(이하 부산대불청) 제32대 회장으로 정승안 동명대 교수(사진)가 선임됐다. 1월 31일 부산 서면 터존 뷔페에서 개최된 회장 취임식에서 정 회장은 청년불자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전국 불교청년회 활동이 약화된 원인을 취업난 심화로 인한 청년층 포섭 실패, 선지식과의 소통 부재에서 찾은 정 회장은 청년불자 리더를 양성해 동시대 청년들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 회장은 청년불자 리더십아카데미를 개설할 예정이다. 불교지식인 외에도 종교 영역을 넘어선 전문 강사진 구축으로 매달 한 번 특강을 개최, 청년불자들이 리더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지속적 네트워크 마련으로 지회활동의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대불청이 올해 5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청년불자 운동의 역사를 되짚는 심포지엄도 마련된다. 정 회장은 “심포지엄은 청년불자 운동의 현상을 냉정하게 되짚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만간 열릴 50주년 기념법회 역시 불청운동(佛靑運動) 50년 성과를 집대성해 대안마련을 위한 아난법석의 자리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정승안 회장은 부산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사회학과 유교, 불교를 통합하며 동양사회의사의 현대적 적용과 관련한 대안 사상과 연구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하성미 기자

총화종 총무원장 혜각 스님 취임

1월 26일 경주 더케이 호텔에서 취임식 후 주요 교역직 임명식



대한불교 총화종(총무원장 혜각)은 1월 26일 경주 더케이 호텔에서 ‘신년하례회 및 원장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제 17대 총무원장으로 선출된 혜각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안으로는 원용 화합과 밖으로는 보살행 실천을 지향하고자한다”며 “미래에 전 불자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제시하는 총무원이 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사부대중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도록 거듭 노력해달라”며 “이를 위해 수행활동 위한 환경 마련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신임 총무원장 혜각 스님은 1972년 5월 20일 경기 고양시에 있는 흥국사 해송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사미계, 비구계를 수지하고 공주 감사, 울산 보현정사에서 정진하다 경주 불심원을 창건, 주지를 역임 중이다. 또한 총화종 총회의원과 호계원장, 경북 총무원장 소임을 맡아 활동했다. 이어 2014년 11월 27일 제 76차 중앙총회에서 제 17대 총무원장으로 선출됐다.

한편, 이날 취임식 후에는 총화종 중앙총회 주요 교역직 임원 임명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부총정 만재·남은 스님 △총회 의장에 안우 스님 △총무원장 혜각 스님 △교역원장 법만 스님 △호계원장 만오 스님 △포교원장 해평 스님 등이 각각 임명됐다. 하성미 기자

경주 불국사 성도재일 기념법회



경주 불국사(주지 종오)는 1월 26일 불국사 문화회관 3층 강단에서 성도재일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불국사 신도회, 스님, 경주시 기관장 단체장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성도재일 행사 후 불국사신도회 제7대 회장 이영숙 외 33인의 신도임원 임명장 수여식도 진행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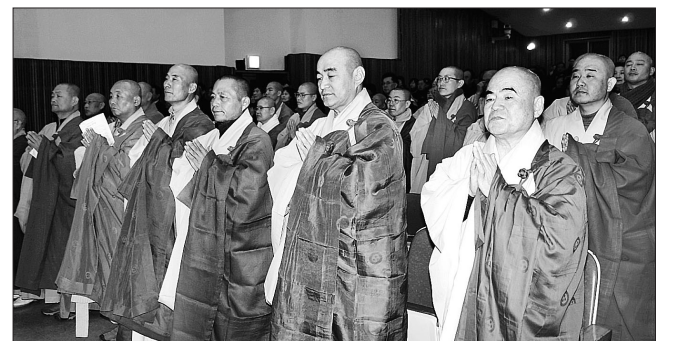
한·이란 KCRP 종교간 대화 세미나



KCRP(대표의장 자승)는 1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종교간 대화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로 4회를 맞는 한국-이란 종교문화 교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과 이란의 종교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폭력과 근본주의에 맞서는 정의로운 평화를 만들기 위한 종교간 협력’을 주제로 머리를 맞댔다.

KCRP 종교간 대화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현 스님은 “최근 지구촌 가족들의 가슴을 저미는 일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종교 근본주의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며 “오늘 이 모임은 종교인들이 평화를 이루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 목적하여 마련된 자리”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주한 이란 대사인 하산 타헤리안, 알리 무하마드 박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배현진 기자


안동사암聯 성도재일 법요식



안동불교사원연합회(회장 자현)가 1월 24일 안동시청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성도재일 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사찰 주지스님과 지역기관 단체장 각 신행단체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했으며 식순에 따라 독경, 명종, 육법공양 축사, 발원문 낭독, 음성공양 등이 이어졌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2015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헤인 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

## 한국 유학생 중국 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1. 특차모집**

학과	학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10명	
박 사 과 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2. 학교소개**

-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 군입대 연기 가능
-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 학자금 대출가능
- ▶ 서울시에 대학 편입가능
-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3. 지원자격**

-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 주지스님 추천자

**5. 문 의 처**

☎ 전화 : 86-25-84028478  
86-13-585195431

☎ 팩스 :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 소 : 中國 南京 亞東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헤인**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